

# 청소년의 외로움과 자살생각: 희망의 매개효과

정혜경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부교수

##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Hae-kyung Chung

Associate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 예방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청소년 338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희망, 희망과 자살생각은 각각 부적 상관관계, 외로움과 자살생각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은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상황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희망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청소년, 외로움, 자살생각, 희망,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lonelines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uicidal ideation and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on the relation between lonelines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suicidal ideation to carry out preliminary data for preventing and controlling adolescents' suicide. The study subject comprises of 338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8.0.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dolescents' perceived loneliness and suicidal ideation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one another, and adolescents' perceived loneliness and hope, hope and suicidal ideation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one another. And analysis shows that the hope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loneliness and suicidal ideation. With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significance of managing crisis situations of adolescents should be recognized and solutions such as hope enhancement programs should be promptly utilized.

**Key Words** : Adolescent, Loneliness, Suicidal ideation, Hope, Mediating effect

### 1.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의 평균인 5.9명보다 1.4배 높은 8.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자살은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인으로서는 개인, 가정, 학교로부터의 정신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1].

자살은 자살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자살계획, 자살 시도 그리고 자살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으로서 자살에

\*Corresponding Author : Hae-kyung Chung(kyung1104@cau.ac.kr)

Received October 13, 2020

Accepted March 20, 2021

Revised March 8,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특히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환경에서 기인된 문제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나 외로움 등을 쉽게 느끼고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충동성이 강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할 수 있으며,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는 그 이후의 삶의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3, 4].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외로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5]. 외로움은 대인관계로부터 기인된 부정적 정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들과의 애착 부족이나 의미 있는 개인과의 관계 결핍, 애착대상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며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한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하나 이러한 상태가 심해질 경우 정신 및 신체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6]. Lee & Kim[7]과 Tzouvara 등[8]의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외로움이 확인된 바 있으며 상호작용의 부재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지각되는 외로움이 심해질 경우 부적절한 반응으로 표출되기 쉬우므로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인의 내적 변인인 희망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Snyder[9]는 삶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탐색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희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미리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어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다고 생각하여 우울해 하거나 절망하는 등 부정적 정서 상태에 머무른다고 하였다. Kim & Lee[1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살생각이 높다고 하더라도 희망의 경로사고와 주도사고가 높은 경우 희망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희망은 심리적, 사회구조적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변화와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며 이는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10, 11].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자살생각의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이나 불안, 외로움, 충동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외로움은 청

소년의 자살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내적 자극요인으로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외로움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희망은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앞서 기술한 주요 변수인 청소년의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단선적 맥락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5, 11, 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희망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 보다 유용하고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희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희망은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외로움을 독립변수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희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변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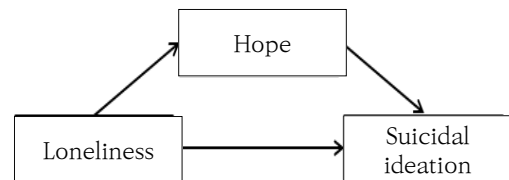


Fig. 1. Mediation Model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각 학교의 학교장과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 시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전에 연구목

적을 설명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익명성 보장과 본인이 작성한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표본 수 산출은 G-power program 3.1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로 산출한 결과 166명으로 산정되었다. 대상자의 응답률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355부를 배부하였으며 이중 338부의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독립변수 : 외로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외로움은 Hur & Kim[1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가족관계 8문항과 친구관계 8문항, 공동체관계 8문항의 3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08이었다.

#### 2.3.2 매개변수 : 희망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희망은 Kwon[14]이 청소년의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6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의 Likert 6점 척도로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삶, 미래에 대한 신뢰, 목표달달 가능성 평가의 4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개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67이었다.

#### 2.3.3 종속변수 :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Beck, Kovacs & Weissman[15]이 개발한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을 Park & Shin[16]이 자가보고형 질문지 형식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Likert 3점 척도로 삶의 희망이나 자살의도, 자살시도욕구, 자살생각의 지속기간이나 빈도, 자살생각에 대한 태도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고, Park & Shin[16]의 연구에서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17이었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은 Baron & Kenny[17]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193명(57.1%)로 여학생 145명(42.9%)보다 많았고, 학년은 1학년이 150명(44.4%)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48명(43.8%)이었으며, 학업성적은 '중위권'이 153명(45.3%)로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보통'이 190명(56.2%)이었고, 부모의 결혼 상태는 '부부 동거'인 경우가 283명(83.7%)이었으며 이혼이나 별거 등인 경우는 55명(16.3%)을 차지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93	57.1
	Female	145	42.9
Grade	1st	150	44.4
	2nd	112	33.1
	3rd	76	22.5
Religion	Have	148	43.8
	None	190	56.2
Academic achievements	High	117	34.6
	Middle	153	45.3
	Low	68	20.1
Economic status	High	50	14.8
	Middle	190	56.2
	Low	98	29.0
Parents status	Both parent	283	83.7
	Etc	55	16.3

### 3.2 대상자의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 정도

대상자의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외로움은 총점 96점 만점에 평균 41.06(±13.09)점이었으며 희망은 총점 180점 만점에 평균 131.81(±29.54), 자살생각은 총점 57점 만점에 평균 41.68(±5.0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Variables

Variable	Min	Max	Mean±SD
Loneliness	24	79	41.06±13.09
Hope	42	180	131.81±29.54
Suicidal Ideation	30	56	41.68± 5.02

### 3.3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외로움과 희망,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로움과 희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628, p<.001$ ). 이는 청소년이 외로움을 강하게 느낄수록 희망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외로움과 자살생각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r=.409, p<.001$ ) 이는 외로움을 강하게 느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희망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r=-.438, p<.001$ ) 이는 청소년의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Loneliness, Hope and Suicidal Ideation

	Loneliness	Hope	Suicidal Ideation
Loneliness	1		
Hope	-.628***	1	
Suicidal Ideation	.409***	-.438***	1

\* $p<.05$ , \*\* $p<.01$ , \*\*\* $p<.001$

### 3.4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희망의 매개효과

#### 3.4.1 희망의 매개효과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7]의 3단계 검증 과정을 적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먼저 자료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605-1.000의 범위로 모두 0.1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00-1.653으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값을 구한 결과 1.659로 나타나 잔차에 대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ron & Kenny[17]에 의해 제시된 본 절차는 세 단계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다음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회귀방정식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다. 이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고,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회귀방정식에 외로움을 독립변수로, 희망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외로움을 독립변수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외로움과 희망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Hope on the Relationship of Loneliness and Suicidal Ideation

Step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R <sup>2</sup>	F
		B	S.E	$\beta$			
1	Loneliness→Hope	-1.396	.102	-.638	-13.665***	.395	186.726***
2	Loneliness→Suicidal Ideation	.157	.020	.409	7.800***	.168	60.835***
3	Loneliness→Suicidal Ideation	.093	.026	.243	3.613***	.217	39.554***
	Hope→Suicidal Ideation	-.047	.012	-.273	-4.051***		

\* $p<.05$ , \*\* $p<.01$ , \*\*\* $p<.001$

분석결과, 1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외로움은 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beta=-.638, p<.001$ ), 2단계에서 외로움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beta=.409, p<.001$ ).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는 독립변수인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 $\beta=.409, p<.001$ )보다 3단계( $\beta=.243, p<.001$ )에서 낮아졌으며 매개변수인 희망도 자살생각에 유의한( $\beta=-.273, p<.001$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한 최종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F=39.554, p<.001$ ), 모형의 설명력( $R^2$ )은 21.7%였다.

3.4.2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희망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18]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obel's Z-Score를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Sobel test에 의한 Z값은  $Z>1.96$  또는  $Z<-1.96$ 을 만족하는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에서 매개변수인 희망을 거쳐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에서  $Z=3.766(p<.001)$ 으로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 : 독립변수(외로움)→매개변수(희망)의 비표준화 계수 (B=-1.396)

b : 매개변수(희망)→종속변수(자살생각)의 비표준화 계수(B=-.047)

SE : 표준오차( $SE_a=.102, SE_b=.012$ )

4. 논의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그 기저요인으로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외로움이 해결되

지 않을 경우 우울이나 불안, 약물남용 그리고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 정서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자살생각은 청소년기 발달특성과 맞물려 상황적 스트레스 수준 증가와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될 경우 자살시도로 표현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외로움은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on & Kenny의 검증과정에서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6.8%였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외로움이 증가하고 자기통제가 낮아질 경우 자살생각도 증가한다고 보고한 [7, 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의 초기 부적응 도식 중 외로움과 불신, 학대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살 생각을 높인다는 [2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시도 영향 요인을 연구한 [5]에서도 외로움은 자살시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임이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외로움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며 심리사회적 모델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관찰과 내·외부적 원인 탐색 및 개별 상담 및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희망과의 관계에서는 외로움과 희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외로움을 강하게 느낄수록 희망 수준은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Baron & Kenny의 검증과정에서도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9.5%로 나타났다. 이는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은 희망 수준이 낮아 부적절한 행동반응이나 사회적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19]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희망은 청소년 외로움의 원인적 요인이 되고 있는 학교스트레스와 자기문제, 청소년 정신건강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였다고 보고한 [2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 결과로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 외로움을 야기 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과

Table 5. Sobel Test for Mediating Effect

Route	B(S.E)	Sobel's Z score ( $p$ )
Loneliness → Hope	-1.396(.102)	3.766 ( $p=.000$ )
Hope → Suicidal Ideation	-.047(.012)	

올려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완충해 줄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 자원인 희망을 증진시켜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 방안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희망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희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aron과 Kenny의 검증과정의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수인 희망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심리적인 안녕감과 더불어 자살생각도 감소한다는 [22, 2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희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적 어려움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자살생각을 낮추는 주요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최종 회귀모형에서 희망이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보다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그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희망은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희망은 사고의 유연성 및 문제해결능력, 낙관주의가 지닌 대응능력을 이해하려는 자기 동기화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24]는 점에서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 가정,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살생각이나 자살 시도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유발되거나 또는 감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외로움과 희망, 희망과 자살생각은 각각 부적 상관관계, 외로움과 자살생각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은 외로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정서·심리적 상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을 지도하고 있는 관리자 교육과 더불어 가족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좀 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살생각 예방 프로그램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로움 중재를 비롯하여 희망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 그 효과를 검증해보는 후속연구와 연구대상을 확대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2020). 2020 *Suicide Prevention White Paper*.
- [2] M. S. Gould, T. Greenberg, D. M. Velting & D. Shaffer.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DOI : 10.1097/01.chi.0000046821.95464.cf
- [3] B. O. Choi, E. Y. Koh, S. Y. Rhie, E. J. Lee & Y. S. Seo. (2011). Maladaptive Perfectionism, Hopelessness, Depression, Psychache,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3), 693-716. UCI : G704-000523.2011.23.3.004
- [4] J. G. LEE & S. H. Cho. (2020).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 of Non-Suicidal Self-Injur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8(2), 233-255. DOI : 10.35151/kyci.2020.28.2.011
- [5] Y. M. Lee. (2011). Relationship Self-control, Stress, Loneli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2), 5541-5549. DOI : 10.5762/KAIS.2011.12.12.5541
- [6] O. S. Kim. (1997). Loneliness : Concept Analysis. *Health & Nursing*, 9(2), 28-38.
- [7] D. N. Lee & N. Y. Kim. (2018). The Effects of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Suicidal Ideation of Older Adul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2), 997-1009. DOI : 10.22143/HSS21.9.2.79
- [8] V. Tzouvara, C. Papadopoulos & G. Randhawa. (2015). A narrative review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loneliness. *British Journal of Community Nursing*, 20, 329-334. DOI : 10.12968/bjcn.2015.20.7.329
- [9] C. R. Snyde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 [10] J. Kim & C. S. Lee.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 539-547.

<http://dx.doi.org/10.14400/JDC.2014.12.6.539>

- [11] A. R. Kim & H. J. Song. (2014). The Influence of Stress on Suicide Ide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Hope Disposition as a Moderator.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1(3), 647-664.  
UCI : G704-SER000009521.2014.21.3.012
- [12] E. C. Chang. et al (2019). The positive role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unhappy conditions in Hungarian young adults: How pathways thinking matter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4(6), 724-733.  
DOI: 10.1080/17439760.2018.1545042
- [13] J. H. Hur & J. S. Kim.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oneliness Scale for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4), 1549-1570.  
DOI : 10.15703/kjc.15.4.201408.1549
- [14] K. H. Kwon. (2008).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Hope for the Adolescence*.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15] A. T. Beck, M. Kovacs & A. Weissman.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ation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16] K. B. Park & M. S. Shin. (1990). College Goal and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1), 20-32.
- [17]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18] M. E. Sobel.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Washington.
- [19] H. K. Chung. (2016). The Influences of Loneliness, Anger and Suicidal Ideation on Juvenile Delinquency.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1(4), 89-99.  
DOI : 10.21097/ksw.2016.11.11.4.89
- [20] S. H. Kim & E. H. Lee. (2018). The Influenc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5(1), 35-47.  
UCI : I410-ECN-0101-2018-180-001900143
- [21] J. H. Jhang & J. H. Ko. (2010). Adolescents' Stress and Mental Health: Hope as a Moerat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 101-116.  
DOI : 10.35151/kyci.2010.18.2.007
- [22] J. U. Kim & M. S. Choi. (2014).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Hope, Peer Relation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2(1), 201-226.  
DOI : 10.35151/kyci.2014.22.1.009
- [23] H. An & H. L. Kim.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between Crisis i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uicidal Ideation,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7(2), 171-188.  
DOI : 10.20497/jwce.2018.7.2.171
- [24] C. R. Synde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DOI : 10.1207/S15327965PLI1304\_01

정혜경(Hae Kyung Chung)

[정회원]



- 200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발달과 양육, 가족간호, 글로벌 헬스케어
- E-Mail : kyung1104@cau.ac.kr